Appendix 1. 관용표현의 유형과 투명도에 따라 선정된 관용표현

유형 \ 투명도	불투명	반불투명	반투명
체언형	- 내 코가 석자 - 물 찬 제비 - 미주알고주알	- 바늘 방석 - 제 눈에 안경	- 그림의 떡 - 엎지른 물
용언형	- 국수를 먹다 - 바가지를 쓰다 - 시치미를 떼다 - 학을 떼다	- 가슴이 뜨끔하다 - 귀가 얇다 - 눈에 불을 켜다 - 손에 땀을 쥐다 -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- 비행기를 태우다	- 기막히다 - 말꼬리를 잡다 - 물샐 틈이 없다 - 발을 끊다 - 뼈에 사무치다 - 손을 떼다 - 색안경을 끼다 - 핏대를 세우다
부사형	- 강 건너 불 보듯 - 손바닥 뒤집듯 - 쥐가 죽은 듯이	- 봇물 터지듯 - 쥐도 새도 모르게	

Appendix 2. 검사 문항 예시

관용 표현 투명도	질문		답지	
	제시 유형	제시 유형에 따른 질문	답지 항목	유형
불투명	독립	'물 찬 제비'는 무슨 뜻일까?	① 물가에서 신나게 물놀이 하는 모습	① 문자적 설명
	문맥	형식: 어제 한일전 축구 봤어? 동준: 그럼, 당연히 봤지. 난 정말 어제 지는 줄 알고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. 형식: 그렇지, 그렇게 팽팽한 경기는 처음이었어. 동준: 맞아,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지.그런데 마지막 종료 4분 전에 박지성이 **물찬 제비**같이 공을 몰아서 슛을 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니까. 형식: 나도,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.	②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모습 ③ 동작이 민첩하고 깔끔하여 보기 좋은 행동 ④ 제비처럼 몸매가 뚱뚱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	② 문맥 관련 설명 ③ 관용적 표현 설명 ④ 문맥 무관 설명
반불투명	독립	'귀가 얇다'는 무슨 뜻일까?	① 씀씀이가 헤프다.	① 문맥 관련 설명
	문맥	동준: 형, 어디에 갔다 왔어요? 준영: 치약을 사러 슈퍼마켓에 잠깐 다녀왔어. 동준: 그런데 칫솔과 비누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준영: 점원이 아주 싸고 좋다고 해서. 사실 비누는 집에 많은데……. 동준: 형은 **귀가 얇아서** 큰일이에요.	② 듣고도 못 들은 척하다. ③ 귀가 작고 귀엽게 생기다. ④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.	② 문맥 무관 설명 ③ 문자적 설명 ④ 관용적 표현 설명
반투명	독립	'발을 끊다'는 무슨 뜻일까?	① 왕래를 하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.	① 관용적 표현 설명
	문맥	태산: 우리 점심 뭐 먹을까? 너 초밥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러 갈까? 정록: 아니, 나 요즘 초밥 안 먹어. 태산: 왜? 정록: 요즘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때문에 생선류 먹기가 좀 꺼려지더라고. 그래서 초밥집 **발길 끊었어**. 태산: 정말? 그렇게 좋아하는 초밥을 안 먹을 결심을 하다니 대단한 걸.	② 마음 먹은 일을 바로 실천으로 옮기다. ③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. ④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는 길을 막아 버리다.	② 문맥 관련 설명 ③ 문맥 무관 설명 ④ 문자적 설명